



안전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Work-Shop

2009년 2월 19일, 계룡스파텔

주최:  노동부
주관: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2009년 2월 19일 노동부가 주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한 "안전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Work-Shop"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 이우현 보령지청장, 조건희 천안지청장, 곽노엽 청주지청장, 조철호 충주지청장 등 노동부와 백일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서만식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이사 등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직원, 충청지역 건설안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자칫 건설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1998년 이후 0.7%로 정체되어 있는 산업재해발생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또한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3대 다발 재래형(협착·전도·추락)재해를 절반으로 줄여 후진국형 재해 근절과 나아가 산업안전보건 문화 선진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안전관리사례로 (주)윤암건설의 유병희 안전과장과 건설안전건설당사제로 권병화 대한산업안전협회 팀장, 건설안전진단 사례로 정현석 대한산업안전협회 팀장, 2009년 건설안전 우수사례발표 및 질의 발표에 이흥주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이 차례로 발표하여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벤치마킹 기회와 안전관련 정책방향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안전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Work-Shop은 5주에 걸쳐 대전·충청지역 대전지방노동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노동청, 경기·인천지역 경기지방노동청, 부산·경남지역 부산지방노동청, 광주·전라지역 광주지방노동청 등 5대 주요 지방청이 주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2009년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Work-Shop 일정〉

일 자	지 역	개 최 장 소	일 자	지 역	개 최 장 소
2009. 2. 26(목)	대구	인터볼고호텔	2009. 3. 12(목)	부산	웨스틴조선부산호텔
2009. 3. 5(목)	인천	라마다호텔	2009. 3. 19(목)	광주	미 정



백일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개회사

오늘 이렇게 충청지역 건설업 안전분야 관계자분들,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 등 노동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 주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기법들이 연구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자는 592명으로 타 업종보다 높으며 특히 추락재해로 46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등 아직도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인도안전협회의 초청으로 문바이에 방문했을 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장의 근로자들 중 안전모와 안전화를 신고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안전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하여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의 안전관계자 분들이 모여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 축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의 안전보건관계자분들이 모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방활동과 정보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 하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일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가 669명으로 업종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5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2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안전보건관계자분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과 3대다발재해 예방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늘 워크숍 주제에 맞게 안전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